

研究論文

# <靑白雲>에 구현된 妓妾 나교란·여섬요의 自意識

조 광 국\*

---

I. 문제제기	IV. 妓女自意識 표출의 시대적 의미
II. 妓妾 問題의 작품 내적 위상	V. 마무리
III. 妓妾 나교란·여섬요의 성격 형상	

---

## I. 문제제기

<청백운>은 10권 10책의 장편소설로 조선후기에 읽혔던 소설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총 507엽, 반엽은 평균 10행, 매행 22~23자로 200자 원고지로 띄어쓰기 없이 1,150매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sup>1)</sup> 이 작품의 국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이 논의를 제약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sup>2)</sup> 이 작품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상, 우리 소설사에 편입시켜 검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국문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본(10권 10책). 창작연대 및 작가 필사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Skillend의 작품 목록에는 제목이 보인다. 원래 이 작품은 낙선재 소장본이었는데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김기동이 편찬한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4(아세아출판사, 1983)에 영인되어 있다.(이하 인용문에서 책제목 <청백운>은 생략함).

2) 조희웅은 내용, 문체, 형식 등으로 미루어 <청백운>이 번역 내지는 변안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추정하였다.(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4 쪽).

본고의 목적은 이 작품에 기녀로 등장하는 나교란과 여섬요 2인의 인물 형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기녀의 自意識 표출의 시대적 의미를 추출해보는 것이다. 이 작품이 妓女妾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바, 이들 2妓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이나 욕망은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녀가 2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녀가 차지하는 작품상 위상이 그만큼 큼을 시사한다. 그러한 기녀의 형상은 작품세계를 넘어서서 조선후기의 사회풍속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나교란·여섬요에 대해 언급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故 정병욱 교수는 이들 2妓가 보여주는 욕망 충족의 모습에서 낡은 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낙천등운> <천수석> <청백운> <화문록> <보은기우록> 등 일군의 낙선재본 소설작품들을 해명하고 이들 작품을 ‘조선왕조말기소설’이라고 일컫는 자리에서 나왔으나,<sup>3)</sup> 아직 나교란·여섬요의 自意識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논의에 다다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개괄적인 해설 수준에서 이 작품의 줄거리를 제시하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sup>4)</sup> 그 뒤를 이어 인물, 갈등, 플롯, 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sup>5)</sup> 장편소설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작품이 2妓로 야기되는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sup>6)</sup> 이들 선행 연구 역시 2妓의 악행을 간단하게 지적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sup>7)</sup>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2妓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진 것은 장기정의 논문에서였다. 이 논문에서는 작품의 대칭구조 및 작가의식

3)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1969.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익사, 1981에 재수록되어 있음.)

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교학연구사, 1983), 540~542쪽.

5) 유병환, 「<청백운> 연구-분석과 발전적 요소 검출」, 『한국문학연구』 6·7 합집(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4), 285~303 쪽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지식산업사, 1986), 492쪽.

7) 조동일의 시각을 따라 <구운몽> <사씨남정기>와의 구체적인 대비를 통해 <청백운>의 소설사적 위상을 밝힌 남상득의 연구가 있었다. 이 논문이 <청백운>의 소설사적 위상을 밝히고 있지만, 2妓의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설사적 온전하게 위상을 밝히는 데에는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남상득, 「<청백운>의 고소설사적 위상<구운몽> <사씨남정기>와의 서사구조 대비 및 발전적 양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6~58 쪽.)

에서의 양면성을 위주로 논의하면서 2妓의 악행을 일정 부분 할애하고 있다.<sup>8)</sup> 이 뒤를 이어 이승복은 처첩갈등의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작품을 ‘부부관계축이 강조되는 유형(<일락정가> <쌍선가> <청백운>)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sup>9)</sup> 그는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이들 작품의 부실이나 첩질의 욕망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들 논의 역시 그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교란·여섬요의 신분인 기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본고에서 妓女自意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기녀의 자의식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근대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妓女自意識이 긍정적인 서술시각으로 뒷받침되든 아니면 부정적인 서술시각으로 형상화되든.

여기서 故 정병욱 교수의 주장이 새삼 주목을 끈다. 그는 나교란·여섬요가 부정적 인물이긴 하지만 욕망 충족의 면모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sup>10)</sup>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욕망을 상세하고도 생동감 있게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매개항의 설정 없이 기녀의 욕망과 행위에 관한 것을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지적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인물의 욕망을 논의함에 있어서 좀더 섬세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인물의 身分 사회적 처지와 이와 결부한 自意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故 정병욱 교수의 논문을 포함한 선행 논문들에서는 나교란·여섬요가 기녀 신분이라는 점은 흔히 지적하면서도 정작 기녀의 特殊賤民身分, 妓女自意識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던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인물형상과 서술의식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히 부정적 인물의 자의식과 그에 대한 서술의식의 괴리·상충이 극대화된다는 것과, 이러한 단면이 조선후기의 사회적 양상과 맞물린

8) 장기정, 「<청백운>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9)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5), 57~77쪽,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월인, 2000), 71~93쪽  
 10) 정병욱, 앞의 논문

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이 지점에서 근대지향성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다면 故 정병욱 교수가 지적한 근대지향적인 성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해명되리라 본다. 최근 필자는 기녀담과 기녀등장소설을 대상으로 기녀자의식을 해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청백운>의 妓女自意識을 규명하고자 한다.<sup>11)</sup>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첫째, 서사세계에서의 나·여 2妓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2妓의 自意識이 삽화적인 것이 아니라 작품의 근간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음으로 나·여 2妓의 慾望과 行爲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기녀자의식의 면면을 알아볼 것이다. 이는 본 논문의 본격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2妓의 自意識을 조선후기 소설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그 자의식이 조선후기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妓妾 問題의 작품 내적 위상

먼저 <청백운>의 서사적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1>는 서사적 흐름에 따라 주요 내용을 작품의 권수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듯 <청백운>은 크게 16 개 단위로 요약된다. 이제 서사세계에서 차지하는 나·여 2妓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위의 내용을 참조로 하여 이 작품의 서사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仙道 문제와 관련한 것, 家門連帶 문제와 관련한 것, 妓妾 문제와 관련한 것 등 세 하위구조가 서로 교직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편의상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11) 출처,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월인 2000).

12) 여기서는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고 요점을 제시하되, 다만 기첩 문제와 관련된 구조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두고 논문 심사자는 연역식 추

<표 1>

번호	내용 요약 정리	권수
①	두쌍성이 仙道에 입문 및 하산	권1
②	‘두쌍성-호강희’의 결연 및 화락	권1
③	두쌍성 장원급제 및 출사	권1
④	杜門·韓門·胡門의 通婚	권2
⑤	‘두쌍성2妓(나교란·여섬요)’의 性關係 및 결연	권2, 권3
⑥	2妓의 正室(호강희) 무고 및 한현진부부 모해	권4
⑦	2妓의 결탁·간음 및 살해 모의·사주	권5
⑧	正室 호강희의 위기 모면 및 정실 호강희 모녀 해배	권6
⑨	2妓의 도주 및 나교란·목평질의 서하왕 의탁	권6, 권7
⑩	나교란의 서하왕 충동질(침략), 두쌍성의 출정	권7
⑪	정실 호강희의 두쌍성 구호 및 두쌍성의 총기 회복	권8
⑫	나교란을 비롯한 惡類 治罪	권9
⑬	두쌍성과 한현진의 공적	권9
⑭	여섬요 治罪	권9
⑮	두문·한문·호문의 2대들의 결연	권10
⑯	3門 가부장의 江湖歌道 및 仙道로의 입문, 별세	권10

仙道 문제와 관련하여, 그 구조가 ‘선도 입문’, ‘세상 출타’, ‘선도 재입문’으로 이어진다. 위의 표에서 보듯 ①과 ⑯이 각각 ‘선도 입문’과 ‘선도 재입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항목은 ‘세상 출타’에 해당한다. 주인공 두쌍성은 어려서 스승 진도남 선생의 눈에 띄어 선도에 입문한다. 모친 설부인이 이에 동의하고, 설부인이 진도남과 친척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 예정된 운명에 따라 세상으로 잠시 나가 입신양명과 환란을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두쌍성은 선도에 재입문한다. 두쌍성은 선도에 재입문하면서 한현진 호승수와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선도를 지향하는 서술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작품

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불충분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된 듯하다. 참고로 본 논문은 두괄식 전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역적 추론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은 선도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암시되어 있는 바, ‘白雲의 길’은 江湖歌道를 누리는 생활을 의미하며, ‘靑雲의 길’은 宦路의 길을 뜻한다. 이 작품은 청운의 길로 나아가 立身揚名을 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宦慾을 제어하여 致仕한 뒤 강호가도를 향유하다가 신선처럼 별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강호가도 및 신선의 생활이 仙道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선도 지향의 구조를 큰 틀로 하면서 이 작품은 다시 家門連帶 문제와 관련한 구조와 妓妾 문제와 관련한 구조로 나뉘게 된다. 가문연대 문제와 기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仙道 지향의 구조에서 보면 ‘세상 출타의 항복 ② 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서로 대조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가문연대는 부귀공명의 극치를 보여주며, 기첩 문제는 그와는 정반대 차원에서 주인공들의 고난을 형상화한다.

이제 家門連帶 문제와 관련한 구조를 보자. 杜門, 韓門, 胡門 등 3가문이 서로 복합적인 通婚關係를 형성함으로써 連帶家門群으로 부각된다. 3가문은 자녀로 각각 남매 2명을 두는데, 이들 남매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혼인하여, ‘두쌍성-호강희’ 부부, ‘호승수-한경의’ 부부, ‘한현진-두혜화’ 부부로 맺어지게 된다. ‘두쌍성-호강희’ 부부와 ‘두혜화-한현진’ 부부가 맺어진 다음 ‘호승수-한경의’ 부부가 맺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물론 이들 부부가 순탄하게 결연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호승수-한경의’ 쌍은 호승수가 모친 진부인의 유배지 계주에 머물다가 마침 계주자사로 부임한 한현진이 누이 한경의와 호승수의 혼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결연은 어려운 중에도 信義를 중시하는 通婚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쌍성-호강희’ 부부는 혼인한 후에 기첩들의 시기와 모해로 온갖 고통을 겪은 후 재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극복된다.

그러한 과정에 杜門, 韓門, 胡門 3가문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가문연대세력을 이루어 나간다. 두쌍성과 한현진은 각각 1 등, 2 등으로 급제한 인재들로서 知

13) 다갯툰 삼스 국공으로 명절(名節)을 청운(靑雲)의 세우고 념양은 빅의를 밧고와 조세에 왕정의 우의하고 둥년(中年)의 상즈의 퇴귀(退歸)호야 삼십년 정중을 안향하고 스십년 남천(林泉)의 방일(放逸)호야 나라히는 진통훈 훈 신히 되고 집의 유복훈 한아비되야 계산 누디의 짜히 신선(神仙)을 기리지어 슈귀부다남히로 지낙(至樂)을 겸호야 나히 구십 갓가이 호연이 도라오니 이 아니 옥테 향안전의 황정경 일즈를 그릇 넓고 잠간 인간의 적강호미런가(<권10> 말미 1000 쪽).

友가 되어, 두쌍성과 한현진은 각각 변방의 도발을 진압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무한다. 호승수는 이들보다 조금 뒤에 장원급제하여 내직의 주요 관직을 맡는다. 두쌍성, 한현진, 호승수는 각각 오국왕, 월국왕, 위국왕에 봉해지고 그 정실들도 수국부인, 월국부인, 위국부인에 봉해진다. 서술자의 말을 빌리자면, “삼공이 요직의 난화 거하야 각” 둥임을 맞트미 스”의 근심하고 시”로 상면하야 초” 흥 축녹이 비록 만흐나 축” 흥 계교를 닛지 아니하더라”처럼 이들 3 가문의 가부장은 국가의 동량이 되었던 것이다.<sup>14)</sup> 이들의 후손들인 2대 역시 국가의 중심 관료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요컨대 이 작품은 通婚을 통한 가문연대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sup>15)</sup>

다음으로 妓妾 문제와 관련한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첩 문제는 위의 <표>에서 보듯 작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 출타’의 이야기가 ②-⑮ 항목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⑤, ⑥, ⑦, ⑨, ⑩, ⑫, ⑭ 등 7개 항목이 기첩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한 ⑧(正室 호강희의 위기 모면 및 정실 호강희 모녀 해배 이야기)과 ⑪(정실 호강희의 두쌍성 구호 및 두쌍성의 총기 회복 이야기), 2개 항목도 2妓의 시기와 모해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기첩 문제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최소 8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기첩 문제는 총 16개 항목 중 9개 항목으로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상응하여 그 내용도 <권2말>에서 <권9>에 걸쳐 총 10권 중 8권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

이에 걸맞게 이들 기첩이 야기하는 문제는 크게 가정 차원에서 사회 차원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정 차원의 문제라 하면 2妓의 정실 호강희에 대한 시기와 모해와 그로 인한 杜門의 와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妓는 호강희의 타이름을 곡해하여 호강희와 그 모친 진부인을 변방으로 귀양

14) <권10>, 912쪽.

15) 한호 낭공 입조 스업은 각” 본전의 즈셔하고 즈순부녀의 성취시말은 다 속의의 이시미 다만 츠셔와 즈너 다쇼만 별노 기록하고 손항 이하 스적은 점” 만하 츠편의는 번다하야 쓰지 못흐나 후릭의 두한호 삼가의 명보현신과 문장기절이 서로 무리지어 나 대송이 맛도록 농현원혁하니 오히라 삼가의는 동괴되고 계는 급난의 김허도다(<권10> 999쪽).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連作이나 派生作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진술은 이 작품이 일정하게 가문연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게 함으로써 두문의 가정을 혼란에 빠뜨린다. 또한 두쌍성 몰래 情夫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두문의 도덕성에 먹칠한다. 사회 차원의 문제라 하면, 2妓의 두문·한문·호문에 대한 위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2妓는 ‘한현진·두혜화’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자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이 부부를 유배가게 한다. 이로써 ‘호승수·한경의’의 혼약이 위기에 처하게도 된다. 이들 3가문에 대한 위협은 가문 연대에 대한 위협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는 곧 가문간의 유대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문제라 하면, 2妓의 도주 및 敵國 王 사주, 송나라 침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妓는 각각 宋 王室의 공녀와 서하왕의 후궁으로 신분을 바꾸는데, 그 중 나교란은 변방 서하왕의 후궁이 되어 서하왕을 부추겨 송나라를 침입하게 한다.<sup>16)</sup>

이상, <청백운>의 구조는 仙道 문제와 관련한 것, 家門連帶 문제와 관련한 것, 妓妾 문제와 관련한 것 등 세 하위구조가 서로 교직되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적인 흐름이나 분량 면에서 보아 이 작품에서 비중이 보다 큰 것은 기첩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문연대 문제와 기첩 문제를 놓고 그 비중을 좀더 확인해보기 위해 ‘세상 출타’ 대목을 중심으로 탄 작품과 비교해보자. <청백운>에서 나오는 家門連帶는 <임화정연>의 가문연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임화정연>에서는 가문연대가 작품의 중심적인 구조로 자리잡고 있음에 비해, <청백운>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약하다. 복수 가문 출신의 복수 주인공이 활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화정연>과는 달리 <청백운>에서는 杜門을 중심으로 韓門과 胡門이 결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17)</sup> 결국 <청백운>은 중심 가문인 杜門의 문제를 주

16) 2妓에 의하여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것 예컨대 나교란이 서하왕 조원호를 총동질하여 宋을 침입한 것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문학적 형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설적 흥미를 제고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학적 형상은 단순히 소설적 흥미 요소인 것만이 아니라 “기녀의 의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허구적으로 서사세계에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 이러한 점에서 <청백운>에서의 가문연대는 <소현성록> <소문록>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에서는 다른 가문들과의 정치적 연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며, 가문간의 연대와 결합보다는 특정 한 가문의 발전과 흥왕에 서사전개의 초점이 놓여 있다. 반면에 <임화정연>에서는 한 가문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複數의 가문들에 걸쳐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동시에 출전하여 공을 세우고 마침내 사회와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작품은 “복수가문의 별렬적 연대를 구성원리로 하여 작품세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졸고, 「<임화정연>에 나타난 家門連帶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



로 다루고 있다 할 것인데, 두문이 부닥치고 있는 현안은 바로 나·여2妓의 문제로 모아진다.

이에 다음 순서로 2妓의 성격 형상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I. 기녀 나교란·여섬요의 성격 형상

나교란·여섬요 2妓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앞의 <靑>에서 제시된 ⑤ ⑥ ⑦ ⑨, ⑩, ⑫, ⑭ 등 2妓의 악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7 개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⑤ ‘두쌍성-2妓(나교란·여섬요)’의 性關係 및 결연
- ⑥ 2妓의 正室(호강희) 무고 및 한현진부부 모해
- ⑦ 2妓의 결탁·간음 및 살해 모의·사주
- ⑨ 2妓의 도주 및 나교란·목평질의 서하왕 의탁
- ⑩ 나교란의 서하왕 충동질(침략), 두쌍성의 출정
- ⑫ 나교란을 비롯한 惡類 治罪
- ⑭ 여섬요 治罪

2妓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⑤의 항목을 좀더 상세히 제시하자면, 2창은 두쌍성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어부업은주’, ‘산가옥액주’, ‘동정향감주’, ‘포도주’, ‘낙양춘’ 등 여러 가지 이름난 술로 두쌍성을 취하게 한 다음, 2妓가 함께 두쌍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아무리 분디 문의 의지하야 우습을 드리는 슈단으로 임의 주량의 풍뉴를 디히  
미 ... 비린 거술 보미 엇지 습키지 아니하리오 이에 서로 더브리 관을 벗기며  
옷술 글너 슈침의 평안이 호고 축을 물니며 향을 술오미 원앙금니의 흥기 나  
아 안즈니 ... 사랑이 밤중은 하야 썩치니 두 미인이 좌우로 피셔 온유향이 머

---

학회, 2002.12 참조).

지 아니홀시 드디어 취흥을 이기지 못하여 년화적을 잡으니 무산의 꿈이 전도  
흔지라<sup>18)</sup>

이들은 두쌍성의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성적으로 농락하고 미혹하였다. 이러한 음탕한 자질은 이들이 娼妓로 지냈던 전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쌍성과 혼인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들 2妓는 그들의 당대의 도덕률을 위반하는 음행에 대해 일말의 罪意識도 지니지 않는다.

죄의식을 지니기는 커녕 2妓는 욕망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어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 성취에 방해자가 된다면, 대상이 그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남편일지라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杜門에 들어가게 된 2妓는 분향 결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겉으로는 정실 호강희를 칭송하면서 한편으로는 酒色歌로 남편 두쌍성을 미혹시킨다. 그러다가 남편을 잘 모시라는 정실 호강희에 대해 무고하여 곤경에 빠뜨린다. 때묻은 옷을 입고 호강희가 옷을 대주지 않는다며 억지부리고, 두쌍성이 노래 부를 것을 요청하자 호부인이 또한 노래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모략한다. 나아가 이들은 호강희의 시비인 춘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호강희가 설부인과 두쌍성을 비방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여섬요가 거짓으로 잉태한 것으로 꾸미고 호강희가 준 독약을 먹고 낙태하였다고 참소하기도 하고, 별원에 불을 지르고 호강희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또한 이들 2妓는 두쌍성에게 충고하는 한현진과 자신들을 꾸짖는 두혜화에게 앙심을 품고, 한현진을 계주자사로 나가게 함으로써 ‘한현진-두혜화’ 부부를 杜門에서 떨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2妓는 목평질, 어사 초약 등과 결탁하여 회퇴, 간음 등을 일삼고, 또한 귀양가던 호강희를 뒤쫓아 조아강가, 성사원에서 살해하라고 사주하기도 한다.

이들이 죄상이 탄로난 뒤 이들은 쫓겨 도주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두쌍성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운다. 그리하여 나교란은 목평질과 함께 성명을 고치고 서로 자매로 꾸미고 서하왕 조원호의 후궁이 되어 조원호를 부추겨 중국을 침범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서하의 충신으로 중국 침략을 반대하는 모용충을 참소하여 변

18) <권2>, 165~166 쪽

방으로 귀양보낸다. 서하왕이 중원을 침략하여 패배하자 거짓 항복하여 두쌍성을 살해하도록 획책하기도 한다. 한편 여섬요는 중국 宋의 궁녀가 되어 두쌍성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본다.

요컨대 2妓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에게서 회개나 회심의 모습을 전연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2妓의 악행은 “딤 창누의 천 혼 거시라 이 요계를 일우물 원히고 먼니 신세를 의지흐물 계교흐미 음난흔 형실을 도금도 기탄치 아니하니 세간주식의 침혹흐는 직 그 가히 진계홀진져”(317쪽)라는 서술자의 진술에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 형상은 우리 고전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낙천등운>에 娼妓로 전락한 女性群이 나오지만 <낙천등운>에서는 <청백운>과 같이 기녀들의 악행이 상세하게 그려지지 않는다.<sup>19)</sup>

이들 2妓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구현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 2妓의 부정적 행위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의 慾望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들 2妓의 욕망은 情慾과 正室獲得慾望,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情慾을 보자. 2妓에게서는 정욕이 지나쳐서 貞操·志操를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앞서 어느 정도 언급되었듯이 이들은 두쌍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기 전부터 娼母 목건랑의 아들인 목평질과, 그리고 어사 초악과도 정분을 맺었으며, 두쌍성의 첩실로 들어앉고서도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지속한다. 두쌍성의 첩실로 들어앉은 2妓는 자신들의 처지를 부자유스럽다고 여기면서 청루에서 여러 남자를 상대하던 지난 시절을 그리워했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正室獲得慾望을 살펴보자. 이 욕망은 2妓가 정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신분상승 욕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들의 情慾도 그 자체로서 그치지 않

19) <낙천등운>에는 여성을 요구하는 무리(고관대작이나 기능난과 같은 巨賚, 여성을 팔아넘기는 무리(동전채과 석묘랑), 거래 대상이 되는 여성군(동예야, 하선 혜랑), 창가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무리(후선·가도삼 부부와 후마) 등 네 가지 인물군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에서 넷째 부류의 인간군은 창가를 운영하는 무리들은 중매의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인신 매매 집단을 형성하며 막대한 실리를 쟁긴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택, 「낙천등운의 사회사적 고찰」, 『우리문화』 2, (우리문화연구회, 1968); 이상택, 「낙천등운고」,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I』, (이대출판부, 1971); 졸저, 앞의 책 342~343 쪽 참조

고 정실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수렴된다. 2媿가 가장 바랐던 것은 정실이 되는 것이다. 2媿가 두쌍성을 유혹한 것도, 호강희를 모해한 것도, 그 과정에서 목평질이나 초약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도 정실이 되기 위해서였다.<sup>20)</sup> 2媿는 두쌍성에게 자신들을 정실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지만, 두쌍성이 선대로부터 첩으로 처를 삼은 예가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두쌍성에게 양심을 품기에 이른다. 다음을 보자

- ㉠ 일성지원이 원비 두 즈의 잇드가 쏘 이곳의도 엇지 못흐물 둥심의 혼흐  
니<sup>21)</sup>
- ㉡ 두쌍성은 첩의 큰 원슈라 청컨디 이 집을 도륙흐고 전어스 초약은 신의게  
여턴흔 덕과 난망홀 은혜이실 썬 아냐 직식이 출뉴흐고 튕의 과인흐니 이  
스람을 둥임을 맞지시면 대왕이 고침언와흐샤 근심이 업스리이다<sup>22)</sup>
- ㉢ 교네 우러러 보고 즈탄왈 내 저런 스람을 길너 썬기지 못흐고 셔하왕도 즉  
시 여희니 나의 팔직 괴공흐도다<sup>23)</sup>

㉠은 나중에 죄가 발각되어 달아났던 나교란이 서하왕 조원호에게 의탁하지만 서하왕의 원비가 되지 못하고 후궁에 머물게 되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는 정황에 대한 진술 대목이다. 나교란이 서하왕에게 의탁하여 宋나라를 침략하도록 충동질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실로 받아주지 않는 두쌍성에게 복수하고자 하였던 때문이다. ㉡은 그러한 나교란이 서하왕을 충동질하는 대목이다. 자신을 사랑 하였던 두쌍성을 미워하고 그와 정반대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초약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은 나교란이 두쌍성, 서하왕 그 누구에게도 정실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신의 박박한 처지를 한탄하는 대목이다.

20) 우리 당초 언약이 텅하를 평당흔 후 흥구를 난화가져 작호를 흥기 빗너자 흐더니 이제 원비의 위 오리 비엿시니 상셔의 썬이 일양돈연흐니 무슴 쾌시 잇노뇨 직물 모호기로 흐면 전부터 슈노키 의셔 나온 기예 잇고 세간살기로 흐면 슬흔 잠씨여 슈고 만흐니 편흐고 한가흐기 어이 호시의 후 흐 디접 바들 제만 흐리오 가만이 두면 쾌 나기 쉬워 만일 상셔 장가 들면 이는 쾌공을 죽이미 썬 쾌공이 삼기미라 적년 경영이 엇지 헛수괴 아니리오 맛당이 썬를 일치 말고 힘써 도모흐리니 (<권5> 437~438 쪽)

21) <권7>, 649쪽.

22) <권7>, 655쪽.

23) <권9>, 830쪽.

여섬요가 宋室의 궁녀가 된 것도 자신을 처로 삼아주지 않는 두쌍성에게 훗날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교네 깃거 왈 내 이제 한번 가면 벽〓이 하쥬를 농낙하리니 현대 또 형혀 우  
로지은을 지을진디 두쌍성의 녹〓흔 상원비를 엇지 죽히 날으리오 내 아모조  
록 간괘를 모동하야 깊히 드러와든 그되는 중동하야 병내기를 막즈르고 다만  
화친을 썬하야 만일 성하의 밍세 곳고 희너의 빗글이 자는 날은 우리 화이의  
공이 둥하미 도권이 절노 도라오리니 그 썬를 당하야 위복을 임의로 하고 신  
스를 서로 통하야 두가의 오늘 흔을 쾌히 잡고 다시 현대의 목은 언약을 펴미  
도치 아니라 너는 노력하라<sup>24)</sup>

이처럼 두쌍성에 대한 2妓의 원한은 두쌍성이 자신들을 ‘상원비 즉 정실을 삼아주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사 초약이 나교란·여섬요와 육체적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은 2妓의 不貞과 淫慾 때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2妓가 정실이 되고 싶은 욕망을 교묘히 충동질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2妓의 모든 악행은 정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2妓가 정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여러 가지 악행이 나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 두문이 곤경에 빠지고, 나아가 두문·한문·호문 3가문의 유대관계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첩실의 正室獲得慾望은 17세기 후반에 출현한 <사씨남정가>의 교채란에서부터 비롯하여 그 이후 <일락정기>의 위계선, <쌍선기>의 부실 윤씨, <난학몽>의 위녀에게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중심 갈등은 부실 혹은 첩실이 正室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에서 야기된다.<sup>25)</sup> 이들 작품에서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첩실 개개인의 악한 성품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첩실의 응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사씨남정가> <일락정기> <쌍선기> <난학몽>, 그리고 <청백운>에서 각 작품의 서술시각을 걷어내고 보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부실이나 첩실의 正

24) <권8>, 858-859 쪽

25) 이승복, 앞의 책, 86-91 쪽 참조

室獲得慾望은 매우 현실적이며 치열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양반 중심의 家父長秩序, 蓄妾制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문학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청백운>의 경우 첩살의 출신이 기녀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품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특성의 작품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

#### IV. 妓女自意識 표출의 시대적 의미

<청백운>의 서술시각은 편의상 양반과 기녀라는 서로 다른 대상에 따라 달리 주어진다. 2妓의 욕망과 행위에 대해서는 惡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는 바, 2妓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서술시각으로 일관한다. 한편 기녀에게 미혹된 양반에 대해서는 향락적 생활을 경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양반 풍류에 대한 경계 및 반성의 서술시각은 양반의 풍류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서술시각은, 기녀가 기첩 이전의 기녀 시절에는 철저히 양반의 풍류생활의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녀가 첩살살이를 하게 되면 지난 시절의 행동거지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남성 양반 중심의 서술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양반 중심의 서술시각에 따라 나교란·여섬요가 움직여주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작품의 문제적인 면이다. 2妓는 두쌍성을 유혹할 때부터, 첩살살이를 할 때도, 그리고 가정을 벗어났을 때에도 일생 동안 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철저히 자신들의 정욕, 정실획득욕망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2妓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양반 중심의 서술시각에는 양반남성 중심의 풍류생활, 축첩제 질서, 기부장제 질서 등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양반의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감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확대된다. 나·여 2妓에 의한 가정의 위기 그리고 사회의 위기로, 그리고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는 서사세계는 그러한 위기감을 담아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흥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녀

가 한 가정의 정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정과 가문의 질서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백운>에는 기녀가 양반 남성의 향락 대상에 머무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질서에 의해 기녀가 통제되기 어렵다는 점이 증폭되어 형상화되어 있음을 조심스럽게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작품 전체에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서술의식은 기녀의 정실획득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기녀를 징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녀가 천민신분계층에 머물지 않고 정실이 되고자 했던 것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가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성을 되찾으려 했던 妓女自意識의 표출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기녀와 처첩들 통제하면서 풍류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양반의식,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그런 양반의식을 따르지 않는 기녀 계층의 기녀자의식, 이 두 의식이 마주치고 부딪치는 것을 이 작품은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녀의 自意識과 양반 風流意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충하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청백운>의 서술의식은 양반 중심의 세계가 그들의 의도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서사세계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기녀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녀는 결코 悔心과 悔改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 나교란은 잡혀가면서도 두쌍성을 저주했으며 자신이 정실이 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는 정실을 모함하고 그리고 남편을 속이지 않고서는 정실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역설적이게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저주와 처지 한탄은 기녀의 신분상승욕망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반 풍류의식과 맞부딪치는 기녀자의식을 감정 표출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지점에서 기녀자의식의 근대지향적 성향에 대해 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의가 한 단계 심화될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가부장사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양반 남성이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에 병행하여 양반의 사고나 의식이 여성에게 투영되거나 덧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양반의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여성에게 투영·전이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순수 혈통을 보장받으려 했던 양반남성의 純粹血統意識이 사대부 여성에게 주입되어 貞操意識으로 전이되고, 다른 하나는 여러 여성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양반의 風流意識이 특수신분계층인 기녀에게 주입되어 妓女意識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반의 의식이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만은 아니라 일정 부분 사족녀와 기녀에게 각각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貞操意識을 지니는 사족녀 정실에게는 가정과 사회에서 신분과 권익이 주어졌으며, 양반의 풍류를 담당하였던 기녀의 경우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남성관계를 맺어도 풍속상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 조선중기까지는 양반의 순수혈통의식과 풍류의식이 양립할 수 있었다. 이에 걸맞게 사족여성과 기녀들에게 각각 반대급부가 주어지면서 철저히 士族女와 妓女에게 양분되어 주입되던 貞操意識(사족녀)과 妓女意識(기녀)이 양립할 수 있었다<sup>26)</sup>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양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士族正室에게는 애욕 내지는 정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후기 문학작품, 대화소설이나 별열소설에서 사족정실의 애욕이 표면화·수용되기에 이르는데, 단적인 예로 <임화정연>의 여미주를 들 수 있다.<sup>27)</sup> 또한 연암이 <열녀함양박씨전>에서 언급된 사족녀의 정욕도 그러한 차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한편 기녀에게는 자아각성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妓女는 양반 풍류의식이 자신들에게 전이된 것, 즉 기녀는 양반 풍류와 향락의 수단이라는 妓女意識을 더 이상 지니기를 거부하고 自我를 각성하기에 이른다. 기녀 자신들을 풍류와 향락의 대상으로 보려는 양반의 풍류의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풍류주도의식, 실리추구

2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졸저, 앞의 책, 354~357쪽 참조

27) 여미주는 밤중에 자신이 반한 정현경에게 달려들지를 않나, 술에 취했을 때 결혼한 언니 대신에 잠자리에 들지를 않나, 그리하여 임신하지를 않나, 당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러한 여미주의 행위는 악행으로 받아들여져 징치되어야 할 것인데도 소설세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씨 가문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진다.(졸고, <임화정연>에 나타난 家門連帶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12 참조; 졸고, 「<임화정연>의 여미주 성격에 대한 고찰」, 『언어와 진실』, 김상대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2003, 495~516쪽).



의식, 애정희구의식, 신분상승의식 등 妓女自意識을 표출하기에 이른다<sup>28)</sup>

이러한 연장선에 <청백운>의 나·여 2妓의 自意識이 놓여 있다 조선중기까지는 기녀들이 양반 풍류생활의 수단·도구였다면, 이제 나·여 2妓는 주동적으로 양반의 풍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이 두쌍성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남성관계를 맺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자의식은 풍류주도의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妓는 기녀의 처지와 첩실의 처지를 벗어나 정실이 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자의식은 신분상승의식이라 할 수 있다. 풍류주도의식은 신분상승의식으로 수렴되는 바, 이들 2妓는 두쌍성과 주변 남성들에게 淫行을 서슴지 않았으며 士族正室을 축출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말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정실을 차지하기 위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후기에 이르러 기녀들이 주체적 의식과 행동에 의해 양반의 풍류생활이 위협을 받고 양반 중심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된 기미가 보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사회의 한 단면에 대한 양반들의 방어의식 내지는 위기감이 작품의 서술의식으로 전가되어 기녀들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백운>에서는 기녀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다른 작품, 예컨대 <옥루몽>에서는 기녀가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sup>29)</sup> <옥루몽>에서 기녀의 상대로 설정된, 두 부류(양창곡과 황여옥)의 양반관리들은 공히 풍류의식을 보이지만 기녀를 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妓女自意識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황주지사 황여옥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기녀자의식을 수용하려는 양창곡은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이와 결부하여 양반의 풍류의식과 기녀의 자의식은 두 가지의 관계를 형성한다. 하나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 이는 기녀 강남홍과 탐관오리 황여옥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다른 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 이는 강남홍·벽성선과 양창곡의 관계, 설중매·빙빙과 양기성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옥루몽>에서는 기녀의 자의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황여옥이 부패한 관리, 향락을 일

28) 필자는 최근 기녀가 등장하는 설화와 소설, 즉 妓女譚과 妓女登場小說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줄져, 앞의 책, 305~327쪽 참조).

29) 줄고, 「<옥루몽>에 나타난 王道覇道 並用的 정치이념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15(한국고전문학회, 1999), 265~266 쪽

삼는 부정적인 관리로 형상화되어 있는 반면, 기녀의 자의식을 수용하는 양창곡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한편 자의식을 표출하는 기녀들에게 긍정적인 서술시각이 덧씌워져 있다.

기녀형상과 관련하여 <청백운>은 <옥루몽>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옥루몽>에서 강남홍·벽성선 2妓가 애정희구의식, 신분상승의식을 지니면서 정조를 잃지 않는 프로타고니스트로 형상화되고 <청백운>에서 나교란·여섬요 2妓가 신분상승을 피하지만 정욕을 버리지 않은 안타고니스트로 형상화되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두 작품 공히 신분상승의식을 지닌 기녀 형상의 측면에서 중세질서의 와해와 근대지향적인 움직임이 포착하고 있다는 점은 상통한다 할 것이다. 요컨대 일찍이 故 정병욱 선생께서 정곡을 찢었던 바, 2妓의 성격 형상에는 중세질서의 해체 및 근대 지향의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청백운>은 양반 중심의 서술시각으로 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서술시각을 고려할 때, <청백운>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춘향전>이다 <춘향전>의 서술시각은 다른 작품에 비해 양반 중심에서 벗어나 춘향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서사세계에서 춘향의 욕망과 행위는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춘향은 이도령, 변학도 그 누구든지 자신을 기녀로 보려는 양반에게는 결코 몸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인정해줄 때 비로소 춘향은 몸과 마음을 허락한다. 그 과정에서 기녀는 풍류와 향락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이도령의 의식을 바꿔 기녀도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를 이도령이 수용하게 한다. 말하자면 기녀자의식이 양반 풍류의식을 바꾸어 놓기에 이른다.<sup>30)</sup>

요컨대 <청백운> <옥루몽> <춘향전>은 공히 조선후기의 기녀들의 자의식 표출 내지는 성장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청백운>은 두 작품과는 달리 2妓의 욕망과 행위가 부정적인 서술시각으로 덧씌워져 형상화되어 있지만, 즉 2妓가 안타고니스트로 그려지고 있지만, 기녀의 성격 창출의 면에 한정할 때 조선후기 근대 이행기에서 형성된 妓女自意識을 충실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할 것이다.<sup>31)</sup>

30) 필자는 춘향이 양반과 대등한 自意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위의 책, 239~265 쪽 참조).

31) 본 논문의 심사자들 중에 이 논문이 “청백운의 근대지향적 성향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파악하고 “기첩을 주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기첩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 해서 근대지향적”인가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심사자에게 그렇

## V. 마무리

본 연구는 <청백운>을 대상으로 妓女自意識의 면모를 파악하고 그것의 시대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자는 서사세계에서 나·여 2妓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가 仙道 문제와 관련한 것, 家門連帶 문제와 관련한 것, 妓妾 문제와 관련한 것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구조가 서로 교직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한 가운데 기녀 문제에 해당하는 구조가 작품 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들쭉, 기녀 나교란·여섬요의 성격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여 2妓의 慾望은 情慾과 正室獲得慾望,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情慾도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정실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었다. 첩실의 正室獲得慾望은 17세기 후반에 출현한 교채란(<사씨남정가>)부터 비롯하여 그 이후 위계선(<일락정가>), 부실 윤씨(<쌍선가>)로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선상에 나교란·여섬요 2妓의 正室獲得慾望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는 양반 중심의 家父長秩序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문학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청백운>의 경우는 여타의 작품들과는 달리 첩실의 신분이 기녀 출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나교란·여섬요의 妓女自意識이 조선후기 소설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형상화된 것임을 밝혔다. 양반의 풍류의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형성된 기녀의 자의식이 <청백운>의 2妓로 표출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2妓의 自意識이 부정적인 서술시각으로 채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그 이면에서 양반들의 위기감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었다. 2妓의 自意識은 단순한 흥미의 차원이나 도덕적 심성론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조

---

게 보았다면 그 책임이 글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필자는 ‘<청백운>이 근대지향적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청백운>에 형상화된 2妓 인물형상과 자의식이 근대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자는 ‘기첩의 적극적 의사 표현’을 두고 근대지향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기첩의 신분상승의식을 추출하고 이를 소설사적 흐름에 비추어 본 후, 妓女自意識의 근대지향성을 말한 것이다

선후기 양반 중심의 가부장사회의 불합리한 모습을 일정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결부하여 여느 작품에 비해 2妓의 활약과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이들 기녀들의 자의식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국면에서의 근대지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청백운>, 정신문화연구원 소장(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24, 아세아출판사 1983 에 영인되어 있음.)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1983, 540~542 쪽
- 남상득, 「<청백운>의 고소설사적 위상< 구운몽> < 사씨남정가> 와의 서사구조 대비 및 발전적 양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6~58 쪽
- 유병환, 「<청백운> 연구-분석과 발전적 요소 검출-」, 『한국문학연구』 6·7 합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4, 285~303 쪽
- 이상택, 「낙천등운고」,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I』, 이대출판부, 1971.
- 이상택, 「낙천등운의 사회사적 고찰」, 『우리문화』 2, 우리문화연구회 1968.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서울: 월인, 2000.
- 장기정, 「<청백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1969.(『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익사 1981 에 재수록되어 있음.)
-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王道霸道 並用的 정치이념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265~266 쪽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서울: 월인, 2000.
-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家門連帶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12.
- 조광국, 「<임화정연>의 여미주 성격에 대한 고찰」, 『언어와 진실』, 김상대학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3, 495~516 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서울: 지식산업사 1986.
- 조희용,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43, 4 쪽

● 투고일 : 2003. 3. 11

● 심사완료일 : 2003. 5. 2

● 주제어(Key words): 자의식(Self-Consciousness), 풍류의식(music-enjoyment-consciousness), 순수혈통의식(Pedigree-blood-consciousness), 근대지향(Image of modern age), 기녀(Kisaeng).